

고기 소비 패턴까지 바꾼 AI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닭고기의 소비는 줄고, 대체재인 수입 돼지고기와 생선류의 소비는 늘고 있다. AI가 양계 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진데 이어,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으로 닭고기 판매가 줄어드는 등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18일 이마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닭고기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 신장하며 호조세를 보였으나, 12월 들어 AI로 인한 피해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지난 15일까지 15.4% 감소했다.

오리고기 매출도 1~11월은 16% 증가한 데 비해 12월은 17.2% 줄어 AI 확산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 소비 줄어 양계농가 2차 피해 우려 수입 돼지고기 84% 급증 ... 생선류도 늘어

대신 닭고기 대체재로 다른 육류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매출은 1월부터 11월까지 8.7% 신장에 불과했으나,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84.5% 급증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AI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으로 인해 닭고기 소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육류 수요가 수입 돼지고기 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노브랜드 수입 돼

고기의 가격은 9900원(1kg)으로 백숙용 닭(5580원)보다는 비싸지만, 국내산 삼겹살(1만 8900원)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수입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육류를 대체하는 단백질 공급원인 구이용 생선의 매출도 상승하고 있다.

삼치의 경우 1월부터 11월까지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6.6% 감소했으나 12월 들어 11.5% 증가했고, 굴비 역시 17.2%의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 한편 닭고기 매출 감소는 가

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육계협회 통계 시세에 따르면 지난 1일 1kg에 1890원이었던 생닭(大) 가격은 2일 1790원, 3일 1690원, 5일 1590원, 6일 1490원, 7일 1390원으로 불과 일주일 사이 26% 하락했다. 생닭 시세는 13일 1490원, 15일 1590원으로 오르며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예년보다 낮은 상태다.

이는 닭고기 수요가 감소할 것에 대비해 육계업체들이 물량을 시장에 대거 공급하면서 일시적으로 빚어진 현상이다.

유통업계는 내년 1월까지의 이 시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주간 증시 포커스

변동성 키울 만한 이슈 없어 연말 시가배당률 높은 종목 주목 중소형주 반도체·화학업종 관심

트럼프 후보 당선 이후 처음 열린 미국중앙은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인상됐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0.50%에서 0.50~0.75%로 올라갔다. 지난주 언급됐듯이 시장은 이번 금리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향후 금리인상 속도에 관심이 집중됐다. FOMC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점도표에서 내년엔 당초주차례 예측보다 많은 세차례 금리인상 가능성을 암시했고 FOMC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엘런의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재정정책 명확실성과 영향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최근 실세금리가 금리인상가능성을 선반영하며 상승했지만 불안심리 확대로 인상발표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60%까지 상승하는 등 실세금리가 추가 상승했다. 하지만 내년도 미국기준금리는 내년엔 새로 선임되는 FOMC 위원 세명 모두 시장에 우호적인 비둘기파적 성향으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결정이 예상됨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국내증시는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마감되었다. 특히 그 동안 수급불안에 급락세를 보였던 코스닥시장이 7일 연속 상승하며 지난주에만 4.6% 상승해 620선을 회복하였다. 필자가 수차례에 코스닥시장과 중소형주에 대해 매도보다는 하락시 저점매수를 권유했었다.

지난주 코스닥시장의 상승에는 그 동안 중소형주 수급에 큰 부담을 주었던 국민연금의 벤치마크 복제 가이드라인이 폐지되면서 다시 중소형주에 대한 펀드별 신규편입이 가능해졌고 단기 하락에 따른 가격메리트가 부각되면서 낙폭이 과도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주 외국인인 유가증권시장에서 4370억원과 코스닥시장에서 499억원 순매수를 보였고 기관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2850억원을 순매도 했지만 코스닥시장에서는 846억원을 순매수하며 중소형주에 대해 기관의 탈리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주에도 연말 배당투자로 인덱스펀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매수가 이어지겠지만 코스피지수가 박스권 상단에 근접함에 따라 추가적인 상승폭이 제한적인 대형주보다 아직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큰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말 배당투자에서 시가배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으로 메리츠증권, 하이트진로, SK텔레콤, 세아베스틸 등이 예상된다.

중소형주에서는 업황과 실적모멘텀 측면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화학 업종에서 추세적인 상승종목에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 낙폭과대 측면에서는 화장품 바이오 제약 엔터테인먼트 업종 등에서 기관의 수급개선이 나타나는 종목에 단기 저점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다만 코스닥지수도 570포인트 저점에서 7일 연속 상승하며 620포인트까지 단기간 내 하락 대비 1차상승을 진행한 상황으로 이제의 수급개선이 나타나지는 종목을 중심으로 선별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번주에는 변동성을 키울만한 이슈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달러당 118엔대를 넘어서며 엔저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일본중앙은행 금융정책회의(20일)와 22일과 23일 발표되는 미국 11월 내구재주목지수와 미국 미시경제 소비자신뢰지수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니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농협, AI 피해농가 235억 무이자 긴급 지원

김병원 회장 'AI 비상방역대책회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돼 농협 중앙회(회장 김병원)는 AI 긴급 방역과 피해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은 18일 "최근 서울 농협 본관 종합상황실에서 김병원 회장 주재로 'AI 비상방역 대책회의'를 열고 가축방역 취약지대 집중 방역, 농협 전역에서의 피해농가(조합) 경영·금융지원 등 AI 확산 방지와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범농협 차원의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AI 차단에 위해 가축방역의 취약지대인 닭 500마리 미만 가금농가 4만1680호에 대하여 NH방역지원단의 소독차량 154대를 총동원하여 집중 소독키로 했다. 전국 450개 공동방제단은 닭 500~3000마리, 오리 2000마리 미만 농가에 대하여 집중 소독한다.

또 지역농협이 보유한 농업용 광역살포기 129대를 AI 방역현장에 투입하여 전국 37개 철새도래지와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소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AI 전파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쥐를 차단하기 위하여 가금농가에 쥐 퇴치약품 5000kg을 지원하고,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통해 전국적인 쥐 퇴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농협은 일선 현장의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생석회 1223t, 소독약품 1만7450 l 등 5억원 상당의 방역용품을 일선 조합에 공급하고 있다.

피해농가 경영 및 금융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AI 피해 지원을 위한 무이자 자금 235억원을 조합에 긴급 지원한다. 농협 상호금융은 피해농업인 양축자금 및 피해복구자금을 최대 1% 우대금리를 적용 지원하며 기존 대출금은 가한연장 및 대출금 이자에 대해서는



최근 농협중앙회는 서울 농협 본관 종합상황실에서 김병원 회장 등이 참석한 'AI 비상방역 대책회의'를 열었다.

닭 500마리 미만 농가 4만1680호 집중 소독 농업용 광역살포기 129대 철새도래지 등 방역

납입 유예키로 했다. 농협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AI 발병 농가에 대하여 특례보증으로 최대 3억원까지 전액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농협 경제지주는 AI로 위축된 가금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주요 하나마트 매장에서 대대적인 가금류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농협사로는 지난 11월 29일 사료 전 종축 사료 가격을 평균 2.5% 할인했다.

농협 김병원 회장은 "전국 230여 피해 농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농협 전 임직원이 하나 되어 온몸을 던지는 마음으로 AI 확산 방지와 피해농업인 지원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도 최근 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철새도래지인 해남군 고천읍에서 광역방제기 4대를

투입하여 긴급 방역을 했다.

전남농협은 또 AI 방역을 위해 발생지역(나주, 해남, 장성, 무안)과 철새도래지(함평, 순천, 영암, 나주, 고흥)에 생석회 146t, 소독약 670 l, 방역복 6000벌을 지원했고 공동방제단 방역차량을 동원해 발생 농가 주변 및 주요도로와 철새도래지를 집중 소독하고 있다.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흥목)도 최근 지역본부내 24시간 비상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광주본부는 오는 26일 구내식당에서 'AI 관련 닭고기 소비 촉진 시식회'를 여는 등 지속적인 소비촉진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17년 IP-R&D 전략지원 사업 상반기 시행 계획 공고

『2017년 IP-R&D 전략지원 사업 중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의 상반기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1. 사업 목적

• 우리 기업이 핵심·원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 전략을 지원하여 강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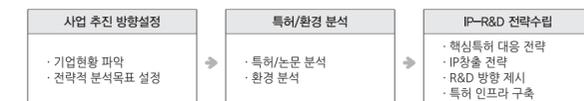
2.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PM)와 지재권분석 전문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기업에 맞춤형·일차형 특허 전략 수립을 지원

3. 세부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중소기업이 핵심·원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을 맞춤형·일차형으로 지원

• 전략수립 지원 절차



• (신청자격)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재창업 중소기업

기업구분	판단 기준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sbo.smba.go.kr)에서 확인 가능
재창업 중소기업	- 7년 이내에 재창립한 기업(2011년 1월 1일 이후 재창립) -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이 공고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지원 유형 및 규모

과제 유형	기간	지원규모	지원 내용	
기술선도형	20주(5월)	00개	개발제품·기술의 관련 분야 IP·기술·시장 정보 분석을 통해 구체적 R&D 방향, 핵심특허 선제대응, 강한 IP 선정 및 포트폴리오 구축, 라이선스 전략 등 종합적 IP-R&D 전략 지원	
	계속과제	12주(3월)	0개	기 지원 과제(5개월)에 대해 전략 이행 점검 및 R&D 추진 상황에 맞는 기술구체화 및 그에 따른 IP 권리와, 발명·업, 해외시장 진출전략 등 보강전략 추가 제공
기술도약형	12주(3월)	00개	선도사 및 경쟁사의 기술 및 IP 분석을 통해 핵심특허 선제대응, 회피 설계 등을 통한 R&D 방향 및 대응 IP 창출 전략 수립	
	재창업	12주(3월)	0개	재기를 위한 핵심특허 창출, 대응 전략 등 재창업 기업 맞춤형 특허 전략지원
IP 융복합	IP 선도형	20주(5월)	0개	제품이 추구하는 컨셉과 시장 요구 및 특허의 병행 분석을 통해 제품 디자인을 설계, 디자인 중심의 R&D 전략을 수립하여 디자인·특허 창출 전략 제시
	IP 도약형	12주(3월)	0개	디자인과 특허 분석을 통해 제품 디자인 개발전략과 특허 전략을 수립하고, 디자인 중심으로 디자인·특허 확보 전략 제시

* [17년 중점 지원 분야]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분야, ICT 등을 활용한 서비스 R&D 과제(비즈니스 모델(BM), 사용자경험(UX) 등 포함) 및 중국진출 관련 중국 특허 과제를 중점 지원 예정

• 지원 조건 (기업부담금)

과제 유형	수행기간	기업부담금 (단위: 백만원)				
		소기업		중기업		
		현금	현물	현금	현물	
기술선도형	20주(5월)	14	6	20	10	
	계속과제	12주(3월)	4	2	6	3
기술도약형	12주(3월)	8	4	11	7	
	재창업	12주(3월)	4	2		
IP 융복합	IP 선도형	20주(5월)	17	7	23	13
	IP 도약형	12주(3월)	10	4	14	8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6. 12. 16.(금)부터 2017. 1. 16.(월) 14시까지
- 신청방법: IP-R&D 사업관리시스템(ipro.kista.r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5. 사업 추진 절차



* 참가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사업설명회 개최

개최일시	지역	개최장소
2016.12.22.(목)	서울(강남구)	포스코 P&S 3층 이벤트홀
2017.1.3.(화)	부산(사하구)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901-1호
	광주(북구)	광주테크노파크본부동 2층 제2회의실
2017.1.4.(수)	대전(유성구)	대덕테크비즈센터(TBC) 1층 플라보홀
	대구(북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5층 세미나실
2017.1.5.(목)	충북(청주시)	충북청주경제혁신센터 1층 대회의실
2017.1.6.(금)	서울(구로구)	키룩스벤처센터 3층 대회의실
	경기(사천시)	시흥산업진흥원 2층 대회의실
2017.1.10.(화)	강원(원주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본부 1층 회의실

* 참가신청: IP-R&D 사업관리시스템(ipro.kista.r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7. 사업 신청 관련 문의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중소기업팀 02-3287-4253, 4362

* 자세한 사항은 2017년도 IP-R&D 전략 지원 사업 상반기 시행 계획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P-R&D 사업관리시스템(ipro.kista.re.kr) -> 사업공고)

